

### 오순절 후 일곱번째 주일 예배

#### THE WORSHIP SERVICE OF 7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3년 7월 16일 오전 10시

인도: 정재홍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9장 “성도여 다 함께”(통일 29)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6번 (시편 10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장 “세번 아멘”(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잠언 10:11-13, 18, 21</b>	정강섭집사
찬 양 Anthem	“난 믿네”	찬양대
설 교 Sermon	<b>“생명의 샘” (Fountain of Life)</b>	정재홍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통일 353) 1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통일 485)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정재홍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고 말씀하셨지만,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을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 없이는, 악한 세상 살아 갈 힘이 없는 줄 알면서도,

하루의 첫 시간, 눈을 뜨며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시작하지

못한 날들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일터로 나가기 바빠, 죄송하다며

일터로 향했습니다. 하루종일 몇 번이나 주님을 기억했는지

모르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장 닥친 급한 일들에 밀려 하루를

말씀을 읽은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없이 보낸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익없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의 청지기로 살지 못하고 삶에 쫓겨 산

시간을 회개합니다. 주님과 연합되지 않은 시간은 모두가 그저

흘러가버리는 헛된 시간임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

시간의 정직한 청지기로 살아 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엡 5:16)

####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개역개정 **잠10:11**)

“The mouth of the righteous is a fountain of life, but violence overwhelms the mouth of the wicked.” (NIV Proverb 10:11)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7/16 (주일)	7/17 (월)	7/18 (화)	7/19 (수)	7/20 (목)	7/21 (금)	7/22 (토)
	수23	수24	삿1	삿2	삿3	삿4	삿5
본문	행3	행4	행5	행6	행7	행8	행9
	렘12	렘13	렘14	렘15	렘16	렘17	렘18
	마26	마27	마28	막1	막2	막3	막4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7/19 수 오후7:30)	룻기 8) - “영적 분별력” (룻 3:7-18)
토요 새벽기도회(7/22 토 오전6:30)	데살로니가전서 8) - “빛의 자녀”(살전 5:1-11)

#### 지난 주일(7/9) 말씀

“**무엇을 보십니까?**”(예레미야 1:11-19)

우리에게 3 가지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①육안(肉眼)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는 눈을 말합니다. ②지안(智眼)입니다. 지식의 눈을 말합니다. 모르던 것을 알게 될 때 지안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동물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③영안(靈眼)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람에게만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안목(spiritual insight)으로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진실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거짓은 거짓으로 볼 수 있는 올바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고 했더니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תְּמוּ(쇼케드)라고 하는데, <쇼케드>는 ‘성급하다’라는 뜻으로 살구나무는 ‘성급한 나무’라는 뜻입니다. 다른 나무들은 아직 모두 말라 있는 초봄에 살구나무만 먼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봄이 가까운 것을 알려주는 징조(sign)인 것입니다. ‘징조’라는 말의 뜻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뜻으로, 곧 재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기를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뒷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부글부글 끓는 가마가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졌다는 무서운 징조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사하다고 해서 계속 무사한 것이 아니고, 내 집이 평안하다고 해서 온 세상이 다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심판 속에 구원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심판과 징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과 구원의 약속,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 설/교/ 메/모